

AUTHOR 주재용

TITLE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IN 제9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9집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178-183.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강 사: 주 재 용 교수
(한신대/교회사)

일 시: 89. 6. 30

I 시작하는 말

예배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의 의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만날 수 있으나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특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디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 더욱 피부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예술적 존재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나 예배라는 영어가 service라는 봉사적 의미를 띠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이 어디서나 드려야 하나 일정한 시간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삶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적,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종교에는 예배가 있으며 예배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II. 기독교 예배의 원형

기독교 예배는 '말씀의 예배'와 '유카리스트(Eucharist)'이 두가지가 예배의 원형이었다. 말씀의 예배는 유대교 시나고그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토라를 읽고 성시를 낭독하고 찬양하는 현재 Protestant 예배의 대충의 모습이다.

유카리스트는 초대 교회에서 매 예배시 드린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에는 일치하나 예수가 이것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학설이 있다. 유월절 식사에서 착안했으리라는 유월절 학설과 유대의 신앙공동체 식사라는 키두쉬(kiddush)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키두쉬 학설이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키두쉬설에 더 공감한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날밤 예수가 잔을 들어 축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유카리스트라 한다. 이 공동체 식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유카리스트 공동체는 첫째 기념 공동체였다. 주님의 죽음을 오늘에 기념하는 '기념'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둘째는 나눔의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 공동의식을 통해 지식이나 재물, 에너지를 나누는 공동체였다. 세번째는 교제 공동체였다. 코이노이아가 포함된 공동체적 사랑이 있었다.

이 두가지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변질되었다. 초대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예배와 유카리스트(성찬식)가 있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만약 말씀의 예배만 있거나 유카리스트만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에서 건탈 수 없었을 것이다.

III. 기독교 예배의 변질

기독교 예배의 두가지 원형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변질되었다. 말씀의 예배는 포기하고 미사 중심 즉 유카리스트 중심의 예배만을 채택한 것이다.

말씀의 예배를 포기한 이유의 첫째가 성직자들의 무식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성직자란 수도원 성직자가 아닌 교구를 맡고 있는자를 말한다.

콘스탄틴 대제가 성직자와 교회에 땅을 부여받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부여된다. 이런 외적인 권위에 미사드리는 책이 있어 매주 혹은 절기마다 그대로 예배를 집전하기만 하면 되었다. 매주 설교를 함으로 열심히 성서를 연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말씀의 예배는 논리와 철학이 필요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 주어진 예식사만 읽으면 되고 미사만 집전하다 보니 미사의 신비주의가 개입된다. 구체적으로 '화체설'을 들 수 있다. 이 화체설은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협감과 권위를 전달할 수 있었다. 받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두려움에 성직자를 숭배하였으며 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미사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계적으로 임한다.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다 만들어 놓은 은혜를 받아 마시면 되는 것이다. 이는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 미사는 모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집전함으로 일반신도는 미사에 참석하면서도 미사의 내용을 모른다. 때문에 성직자와 신도가 일체감을 맞볼 수 없었다. 신도는 전적으로 피동적이었으므로 도무지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감정적이기는 했으나 감격과 생동감이 없었다. 예배의 형식화에 대한 반발로 몬타타누스 운동(성령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배의 변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16세기이다.

IV.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종교개혁의 동기는 성서의 재발견·하나님 말씀의 재발견,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의 재발견이다. 본질적인 것, 가령 어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할 것인가 등을 제거하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기독교의 정체(identity)를 찾아가 하였다. 기독교의 참모습과 형식적 예배를 갱신하고자 하였다.

루터파, 쾰링겐리, 칼빈 등 개혁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은혜만, 믿음만, 성서만이라는 데서 일치점을 보였다. 이들의 예배 개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하나님 중심적 성격의 재발견이다. 성직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며 성직자를 통한 간접적인 만남을 거부한다. 야웨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예배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시 생각하고 역사화하면서 나의 구속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증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설교인 베드로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어떤 설교이든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을 알게하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예배의 교회론적 성격이다.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전제되며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와 교회의 기능이 예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증언·친교·봉사의 공동체 의식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어떤 공동체 의식이든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실재를 느끼고 인간은 이에 대한 아멘의 응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예배의 선교론적 의미이다. 이 선교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부름에 대한 아멘이다. 세상을 향해 문 열어 놓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다.

이 네가지 예배원리의 재발견으로 중세교회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 갱신의 기본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는 성서이다. 구약의 시내산 사건(출 24:1-9)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계약관계,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 이스라엘이 이에 동의하는 사건에서 찾았다.

둘째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 어디 있든 특별한 절기에는 성전을 찾는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는 곳이다.

세째는 회당예배이다. 회당예배를 통해 신앙을 확인하고 말씀을 읽었다. 이 예배는 포로기 이후 디아스포라가 전개되면서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

네째는 매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예배이다.

다섯째는 예수의 예배관이다. 예수는 구약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따르며 단일한 모델이 없다. 교회의 모델 역시 없다. 획일적 예배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예배에 대한 비판의 공통적인 것 몇가지 있다. 미사에 대한 반대인데 미사 그 자체 보다 미사에 대한 신학이다. 상업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미사의 비판이다. 신학적으로는 화체설을 반대한다. 말씀의 예배의 부활이며, 성서의 재발견이다.

한편, 개혁자들은 다소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계승함에 있어 루터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계승한 데 반하여 쾰빙글리는 과격한 종교개혁자로 가톨릭교회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즉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모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파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V. 맺는말

오늘의 예배에서 다시 생각하여야 할 점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중심의 예배이다. 과연 기독교 예배의 원형에서 성만찬을 제외한 설교 중심만의 예배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미사만을 드리는 예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만의 예배에서 성찬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성례전을 자주 함으로 형식화 될 위험은 있으나 절기마다 혹은 한달에 한 번 밤에 드리던가 가족단위 혹은 앉아서나 일어서서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천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실천신학의 과제이다.

둘째는 예배의 예술성이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걸작이 되어야 한다. 최대의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설교 준비뿐 아니라 성가대부터 안내 첫시작에서 끝 순서 모두가 하나의 드라마여야 한다. 가령 악기에서 가야금을 도입한다든가 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을 연구하는 일 등은 목회자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세번째는 예배순서이다. 매주 진행되는 예배 프로그램에 대해 신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외국 예배순서 번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나 헌금 설교순서가 왜 여기 있는지 등의 신학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적 배경이나 예배론적 의식이 예배순서에 들어 있어야 한다.